

♥ 나를 올린 꼬맹이 이야기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어느 날 꼬마 천사를 만났습니다.
 손에 꼭 권 100원짜리 동전하나를 건네며 10분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냐고
 떼를 써서 500원이 있어야 30분을 사용할 수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꼬맹이는 “형아, 저 100원밖에 없는데 10분만 하게 해 주시면 안돼
 요?” 라며 계속 생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400원 더 가지고 오라고 타
 이르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편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꼭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편지지에다 쓰면 되잖아. “그럼 편지지에다 쓰면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빠가 볼 수 있어요?” “어? 응?”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에게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어서
 컴퓨터는 모든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도 갈 거라는 꼬마의 황당하고도 천진한 대답.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가슴이 짠~해져 컴퓨터 한 자리를 내어 주고
 꼬마가 건네는 100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13분이 지나서 꼬맹이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형아, 저 다 썼어요. 하늘나라에 보내 주세요~”
 “으..응. 알았어.^^”

* 그 꼬맹이가 쓴 편지 내용입니다.

TO. 하늘에 계신 아빠

아빠, 저 승우예요~
 아빠, 거기는 날씨가 어때요? 많이 따뜻해요?
 아니면 많이 추워요? 여기는 너무 더워요~
 아빠, 진지는 하셨어요? 저는 조금 전에 할머니가 밥 차려 주셔서
 콩나물이랑, 김치랑 먹었어요~
 아빠~ 이제는 제 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할머니 약 사 드리고 남은
 돈 100원으로 PC방 와서 아빠한테 편지 쓰니깐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제 꿈속에서라도 아빠 보고 싶은데
 저 잘 때 제 꿈속에 들어와 주시면 안돼요? 아빠 저 이제 그만 써야 돼요.
 다음에 또 편지할게요.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승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한테 드림

어느 시인은 “동심을 잃지 않고 사는 이는 맑은 물처럼 살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욕심 없고 천진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성김과봉사 *의명성- 명예
제 9권 2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5월 20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十 명문 가정 만들기



한가정이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뉴욕 교육위원회가 두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후손 5대까지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1대 총장이며

경건한 신학자요 부흥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었고
 또 한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큰 거부가 된
 마커스 술츠라는 불신자 가정 이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은 896명인데 그 중 성직자가 116명,
 대학 총장 3명과 학장 66명을 포함한 교육자가 86명,
 문학가가 75명,국회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3명,과학자가 21명, 장로와 집사 등
 모범적인 신앙인들이286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술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평균 5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 96명,
 알콜 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58명, 윤락여성이 65명,
 극빈자가 286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지출된 국고금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만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볼때
 선조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가문은 물론이요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물질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명문 가정 일 것 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50 장	다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6 (시편 63)	다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84 장	다같이
기도 Pray		정덕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열왕기상 19장 1-8절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영적 침체를 극복 하라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456 장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1,030	총액: \$ 314,871.70
-----------------------	-------------------

◆5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29	임혜자		본당:권사
6	장현중		현관(1)김교섭 최재학
13	정관영		현관(2)장현중 정덕수
20	정덕수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7	정희자		윤주야 장유진

3 조용건
10 최득수

◆5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어린이주일	구역예배
13 어버이주일	
20	여성교회 월례회
27 성령강림주일	남선교회 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우소식

- * 등록 - 윤명화 성도 (윤수지, 윤수빈 837-7008 13 Fleetwood Drive Henderson Heights).
- * 득남 축하합니다 - 지안이 동생 (최충일/김수정 집사가정 10구역). (아장아장 걷는 지안이가 어느 새 누나가 되었습니다.)
- * 방문 - 김 창식집사 (LA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M.Div) 과정 학업 중 방학을 맞아 돌아오셨습니다.

2. 중,고등부 분반 공부가 2시30분까지입니다.

분반 공부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3. 예배장소 주변의 공사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안전사고(특히 어린이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요일 밤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으십시오

구별이 있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수요예배: 저녁 7:30 Main Hall

5.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크리스찬 유모어 ▶

- 남편에게 임한 축복 -

어느 교회에 부부 성가대원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새 장가를 들어서 젊은 새 부인을 맞았고, 그 새 부인과 계속 성가대 봉사를 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새 부인에게 이전 부인 보다 너무나 잘해주는 것이었다. 피스도 들어주고, 까운도 입혀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던 죽은 전부인의 친구였던 여자 성가대원들이 입방아를 찧었다. "먼저 죽는 사람만 병신이며, 일찍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그러던 어느 날도 그 남편이 새 부인에게 오버 액션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중 한 여자대원이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따졌다.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

...

"설마, 나한테도 그런 축복이 있을라고... ^^;;